진리 평화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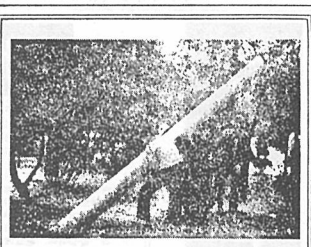
발행인 최 관 복
편집인 안 병 만
주 간 석 일 균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
외 대 신 문 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무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다 253호)

제 2 9 0 호
<순간>
1979년
10월21일 발행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이문촛점

변혁(變革)에 수반되는 개수(改修)의 작업은 합시 적지않은 땀을 요구해왔다. 보다 나은 것에로 향한 발돋움이 방관되는 일은 없는지 성찰해야 할 때이다.
<순동창 라이트 설치작업>

취업문호 좁아져 취업률 저조

10월10일 현재 약32% 보여

내년도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전망이 10월10일 현재 약 32%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파동을 비롯 국내외적 불황요인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기업체의 긴축운영 속에서 내년도 졸업생들의 취업 문호는 예년에 비해 다소 좁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졸업예정자 취업자세 불투명

12월초까지는 80%이상 추정

10일 현재 학생처 집계에 의하면 졸업예정자 815명 (남학생654명, 여학생161명)중 남학생 취업희망자 447명 가운데 142명이 취업이 확정되어 31.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진학예정자와 군입대및 개인사업, 기타 207명을 합산하면 남학생 졸업예정자 654명에 비해하여 약53%가 되어 비율은 다소 높아지게됨.

이는 작년 10월말 현재 취업률 75%에 대비해 볼 때 아직 취업이 상당히 저하될 전망을 내포하

제3세계의 등장 배경

김 용 선

20세기 초 이전까지만하여도 아랍인들은 여러세기에 걸쳐 세계라는 무대에서 탁월 역할을 했고 언변 힘에서나 종속해인 입장에만 처하여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때때로 세계무대의 주인공으로 이들이 등장하게되면서 이들을 자기들의 공동협상상 정치의 운명에 관심을갖고 자기확인과 주장을 내세우며 입장이 비슷한 국가간과 연합하여 자기대도를정립하시키려 하고있다.

여기 제3세계속에 아랍세계가 들어가게된 배경을 본다면 먼저 19세기말의 어러시성에서, 아랍지역의 어떤 문화중심지에서 산업적으로 발생했던 아랍의 자성운동을 들수있다. 19세기초에 아하비아반도에서 종교혁신 정교도주의를 내세우는 [와하비] 운동이 일어났다. 이종교 운동은 순전히 아랍의 토착적인 것으로 이슬람적 성격을 띠운것이다. 당시 아랍사회내부의 부패가 이슬람의 부패로 간주하고 이를 항의하고 옹시에 이슬람 초기에 있었던 반려성있고 단순한 정교도적 이슬람이념에 되돌아 가기를 촉소했음으로 아랍지역 외의 다른 지역의 이슬람개혁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그주이슬 개혁운동과 밀접하여 아랍민족의 자주적 정신을 표방하는 민족주의의 종교

아랍제국 諸國을 통해본 사상·문화적 측면

<1>

○ 최근 출판계와 문단의일각에서<제3세계>에 대한 연구서가 활발하게 간행되고있다. 그러나 이방면의 기왕의 출판물들은 아직 그 양도 부족하며, 선택의 기준도 모호한데 다가, 소개대상을 제대로 모른 채 무에도 많음에자를이 「언어장벽」이라는 이유로 다소 치졸한 졸역(拙譯)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본보에서는 이러한현실을 감안<제3세계>의중심부를 이해의 정립을 위해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연구시론을 국제적 등장배경에 맞춰 게재해 보고자한다. 사상·문화적 측면, 민중문학의역사, 심미 미술표기의 출현, 모욕·종교의 유통적 신해석등에 따른 유파론 시각의 제시는 독자의 제3세계관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편집자주>

◇글쓴이

이슬람교적 국가사회주의로 정책전환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입으로 인하여 낯이 붉은 이집트의 부활운동이다. 피키의 모토만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해방과 근대적 주인식자로로서 사회—경제의 현대화의 바탕에서 현대국가의 수립을 위한 이집트의 학생을 유럽에 유학시 켰고 이들이 돌아와서는 아랍의 지적 부흥에 이바지하고 오늘날 아랍세계가 다시 세계무대에 나타날 점 체문제를 도약의 발판을마련해 주는 선봉이되었다.

그리고 또 지중해 동부 권는에 그이후에는 새로운 역사적 강령요인하여 이운동들이 한꼬으로 집중되어 혼합되고 지속되어 현재의 형태로서의 아랍민족주의 운동의 근간이 되고 제3세계로서의 아랍세계가 존재하는 힘을 낳게했다.

이집트의 근대화를 지향하고 외세의 간섭없는 자주, 문화반전을 그 목표로 내세웠지만 제일차대전 전까지만도 단편적인것에 그 친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

무엇을 어떻게 읽고 있나

—본대생 독서 실태 설문조사

항간의 세평에 따르면 언제부터인지 유감스럽게도, 의대생은 책을 별로 읽지 않고 생각을 깊이 하지않으려 하며—곧 조직력 결핍에로 이른 문제에 치밀한 논리력 결근을 굳이 하려 들지 않으며, 사고와 의식이 무뢰이나 편협적이라는 의견이 지배력인 듯하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의대생의 지력 사고는 무지와 편견이란 벽에 둘러싸여 있는가?— 본보에서는 이와 같은 풍년 아닌 풍년을 구명해 보려는 자그마한 시도로 본대생의 독서실태를 알아보는 설문을 기획, 지난 18일과 19일에 걸쳐 조사해 보았다. 150부를 배부한 이 설문은 본보 기자에 의해 120부 내외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부실의한 응답은 각주되는 일부를 제외한 100부를 놓고 이를 분석하기로 한다.

□조사내용 분석□

대학생의 독서실태를 조사한 통계자료 (대한 출판문화협회 제공) 에 의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1년평균 독서량이나 하루 평균 독서 시간과 비교해 볼때 연평균 독서량 26권 시간 26%, 11~20권 25%의 빈도율과, 하루 중의 독서시간 1시간 정도 45%, 30분 정도 24%의 분포 순서를 보이는 본 설문 응답자의 그것은 평균치에 비해 오히려 나은편 나았지 못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데 특별한 관심으로 주(主) 독서를 하고 있는 부문에대한 물음에서 시·소설·수필 부문이 37%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정치, 경제, 역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 포함) 등의 부문보다 훨씬 우위를 점해 다분히 문예를 취향으로 쏠려 있는 느낌이다. 물론, 귀의 부문엔 해당 선정도 높을수록 후자의 단계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들 도인한 설문 문항에서 놀랍게도 제2단계의 신문, 잡지등 저널리즘 거동이 응답자의 60%로 최우위를 점하였고, 서적을 통한 평교가 19%, 영화 TV 사진등의 경우가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읽거나 주 구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잡지를 문의한 질문에서 응답자 전체의 잡지 구독 평균치가 1인당 2.14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를 아주 특화히 뒷받침하고 있다) 영화나 TV가 오락수단에 지나지 않고 비디오 카세 CATV (유선 텔리비전) 와 같은 본격적인 영상적 정보전달기기가 등장하지 않은 우리이기에 제1단계 정도의 분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게 본다해도, 상식 및 지식·정보의 수입 경로가 저널리즘 계통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설문의 취양스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탓인지는 모르나 저널리즘의 속성에 착목할 때 어떤 의미를는 적 우려스런 결과로서 「저널리즘 독서를 일종의 정신적 폐락을 위한 수단으로만 형하고 있다」는 논리를 끌어내는 논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오른 미학생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을 뿐아니라 지적 교양수준이 낮다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부끄럽게 생각한다」에 40%의 절대적 동의가 표명했다. 「그런 면이 있으나 얼마쯤 정도는 아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나 자신은 그런한 평가에서 제외된다」의 항목에 각34%, 5%, 5%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 경우 역설적으로 소극적 동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때 심상은 는외로 하고서도 오늘날 대학생들의 지력 수준·학구적 분위기의 정도는 각포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더우기 최근을 외미생에게 국한할 때 「타대생에 비해 낮다」(8%) 기보다 「심하다」(24%) 는 편으로 기울어 「굳이 외미생에한한 문제는 아니다」(51%) 라는 「냐관적」 견해에도 놀구하고 우리는 앞서의 세평이 전혀 터무니 없지만은 않은 심증 (心證) 을 던게되는 것이다.

본 설문에서는 구체적인 독서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55권의 도서를 지정 (외대학보 7월11일자 기사와 현간 독서지의 「요즘의 대학생을 읽히는 요인 인의책」참고) 독서 경험 여부를 물어 보았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같은 방법은 그 바탕성과 번뇌도 (煩別度) 에 있어 취법부랑이 가해질수 있다. 또한 이 55권의 책이 응답자로 하여금 「이름은 읽어 투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단수 있는 개연성을 띠고될때 매우 경솔한 결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도중시에 거기가 신간으로 구성된 이 선정 도서들은 어쩌면 고전이나 현재본이나 하는 독서 방법론의 원론적 논의에의 시발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주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하여간 이 도서목록의 나열을 통해 심층 독서(일면책) 실태 역시 결만족스런 것이었다. 영혜별로 7개 부문을 골고 독서 유무를 물은 이 문항에서, 각 부문에 걸쳐 1종 이상의 책을읽은 비율적 약할장기 (博覽强記) 의 부류는 5%에 그쳤고, 몽롱어스무 권 이상의 독서를 한 부류는 18%정도였다. 또한 「5권 이하」만 하더라도 9%나 되었으며, 대부분앞서 분석에서 나타난 경향 밑 소설·수필류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 중 2부대 설립목적중의 하나인 취업자에게 진학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심입생모집 당시에는 취업자대 미취업자의 구성비를 5:5로 구상했었으나 막상 신입생 중에서 취업자는 28%인 114명에 그쳐 계획의 계획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긴 현상은 상위력으로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방식의 입학자가 2부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많았음을 나타내 준다.

<표—3>선정도서의 빈도분포 순위

소설부문		비소설부문	
난장이가 쏘아올린……	60	역사한 「무덤인가	40
부초	48	진화시대의 논리	39
자기앞의 생	41	소유나 삶이나	39
모모	39	불확실성의 시대	35
하버드대학의……	36	한국청년에게 고함	27
광장	34	일자형적 인간	20
머나먼 쏭바강	29	서양는 사람들	17
사랑의 아늘	23	제3세계의 이해	16
개시	22	새벽을 기다리는마음	16
잔인한 도시	21	도스토예프스키	15

(단위: 명)

<표—1>독서의 주(主)대상으로 삼고있는 부문.
<표—2>상식및 지식·정보의 주 수입경로.

이들 수록부 후자의 단계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이들 도인한 설문 문항에서 놀랍게도 제2단계의 신문, 잡지등 저널리즘 거동이 응답자의 60%로 최우위를 점하였고, 서적을 통한 평교가 19%, 영화 TV 사진등의 경우가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읽거나 주 구인대상으로 하고 있는 잡지를 문의한 질문에서 응답자 전체의 잡지 구독 평균치가 1인당 2.14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를 아주 특화히 뒷받침하고 있다) 영화나 TV가 오락수단에 지나지 않고 비디오 카세 CATV (유선 텔리비전) 와 같은 본격적인 영상적 정보전달기기가 등장하지 않은 우리이기에 제1단계 정도의 분포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게 본다해도, 상식 및 지식·정보의 수입 경로가 저널리즘 계통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설문의 취양스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탓인지는 모르나 저널리즘의 속성에 착목할 때 어떤 의미를는 적 우려스런 결과로서 「저널리즘 독서를 일종의 정신적 폐락을 위한 수단으로만 형하고 있다」는 논리를 끌어내는 논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오른 미학생들이 책을 거의 읽지 않을 뿐아니라 지적 교양수준이 낮다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부끄럽게 생각한다」에 40%의 절대적 동의가 표명했다. 「그런 면이 있으나 얼마쯤 정도는 아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상관인가」「나 자신은 그런한 평가에서 제외된다」의 항목에 각34%, 5%, 5%의 분포를 보였는데, 이 경우 역설적으로 소극적 동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때 심상은 는외로 하고서도 오늘날 대학생들의 지력 수준·학구적 분위기의 정도는 각포되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더우기 최근을 외미생에게 국한할 때 「타대생에 비해 낮다」(8%) 기보다 「심하다」(24%) 는 편으로 기울어 「굳이 외미생에한한 문제는 아니다」(51%) 라는 「냐관적」 견해에도 놀구하고 우리는 앞서의 세평이 전혀 터무니 없지만은 않은 심증 (心證) 을 던게되는 것이다.

본 설문에서는 구체적인 독서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55권의 도서를 지정 (외대학보 7월11일자 기사와 현간 독서지의 「요즘의 대학생을 읽히는 요인 인의책」참고) 독서 경험 여부를 물어 보았다. 말할 것도 없이 이와같은 방법은 그 바탕성과 번뇌도 (煩別度) 에 있어 취법부랑이 가해질수 있다. 또한 이 55권의 책이 응답자로 하여금 「이름은 읽어 투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단수 있는 개연성을 띠고될때 매우 경솔한 결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도중시에 거기가 신간으로 구성된 이 선정 도서들은 어쩌면 고전이나 현재본이나 하는 독서 방법론의 원론적 논의에의 시발이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주려되는 점이 없지 않다.

하여간 이 도서목록의 나열을 통해 심층 독서(일면책) 실태 역시 결만족스런 것이었다. 영혜별로 7개 부문을 골고 독서 유무를 물은 이 문항에서, 각 부문에 걸쳐 1종 이상의 책을읽은 비율적 약할장기 (博覽强記) 의 부류는 5%에 그쳤고, 몽롱어스무 권 이상의 독서를 한 부류는 18%정도였다. 또한 「5권 이하」만 하더라도 9%나 되었으며, 대부분앞서 분석에서 나타난 경향 밑 소설·수필류의 범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런 중 2부대 설립목적중의 하나인 취업자에게 진학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심입생모집 당시에는 취업자대 미취업자의 구성비를 5:5로 구상했었으나 막상 신입생 중에서 취업자는 28%인 114명에 그쳐 계획의 계획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긴 현상은 상위력으로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보자는 방식의 입학자가 2부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많았음을 나타내 준다.

2부대학 설치 1년

재학생중 직장인 28%에 그쳐

양적팽창에 못미치는질적보완

이번 동기를 드러낼만큼학생중에 입부가 종분의 책응을 못하거나 만족을 못하고 중도포기 (군입대, 입반학, 미등록) 한 경우가 흔하지 확증되리라고 한다. 고급인력수요의 증량과 시설, 교수의 1대% 활용이란 측면에서 1부대에 중점이편가능한한 2부대를 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하여 극 필요한 제육은 조명시설이 미비하여 원만한 진행이 곤란하다는 사실도 지적된다.

2부대 전체 학생의 20%선에 달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은 현상은 초창기의 진통일 뿐 대부분의 학생이 학업에 매진하고 있고 출석률이 1부보다 좋다는 점들을 고려할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2부간의 실력격차도 애초에 우려했던 만큼 문제이 아니며 그 폭이 많이 줄여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선교학부장의 말이었다. 질적저하와 이미지 손상등을 들어 2부대 설립에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으나 그같은 우려가 많이 해소된 상태에 있음은 사실이다.

그밖에한 2부대의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수 (12명) 의 비율이 1부 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1, 2부간의 향학열의 정을 떠우는데는 오련시일이 걸릴것 같다.

씨를 깊동도 2부대 학생의 10%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어 전체 28%의 학생이 써클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때 2부대생들이 능동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우려되는 결론으로 나타났다.

내년도에 2부대에만 160명이 증원계 피었고 향후 10년간은 1부와 비슷한 수

독자의 소리

의아했던 탈판

즘 시기가 지난 이야기지만 지난달 28일, 축제프로그램중 「탈춤공연」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된 점을 독자의 소리난을 통해 이야기하려한다.

각 대학에선 탈춤에 관심이 있는 분간, 또 마침 「부모님을 모시고」행사의 일환이란 많은 부모님들, 게다가 외국인 몇몇분, 그야말로 우리대학 대외행사의 전형같은 이 곳에서, 진행을 맡았던것으로 보였던 한 전면의 청년이 휴대용마이크를 들고 관중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통에 간간이 시야가 가리워져 고조되는 흥얀 찌는 사태가 있었는가 하면, 그보단 훨 진행에 무리가 생겨 한중를 간에 타소의 구설 (口舌) 이 일자, 여의 그 친구 마이크에 대고 반복하여 차마 인용하기 부끄러운 일보서 「소리지르는 ××끝어내」라고 외치는 실례를 서슴없이 저질렀다.

듣기로는 이 문제의 주인공이 같은 우리의 학우인 외대생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외대이은 언제부터 이같이 빗나간 언행을 보고듣고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자탄과 수치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그날 놀상을 제루리고 동정의 눈치마저 보였던 바대에서 관람은 관중, 그리고 정중히 모셔야 할 부모님 어리분들 앞에 한 외대인으로서 미안하고 면목없음을 감출수 없다. 다같이 반성할 일임에 틀림이 없다. 정정호(E·2)

기자의 발길

'수출경제 입안에 영향력 행사.

—한국 무역협회(KTA)를 찾아

올해들어 수출무역이 시계제 불황과 유류파동로 인해 전반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듦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무역업계도 시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출드라이브정책은 70년대의 급속한 산술적 경제성장과정에 고급인구와 생산성 증대라는 정 (正) 의 측면과 인플레에 따른 저임한 물가 불안등의 부 (負) 의 측면도 내재했다. 이러한 한국 무역의 현주소를 앞아보기 위해 기자의 발길은 최근 코엑스 (KOREA HEARLD)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KTA) 를 찾았다.

KTA (Korea Trade Association) 는 1946년 창설돼 현재 무역업 등록회사 2421개를 산하회원으로 하여 협동조합형태로 수출증대및 수출경쟁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사단법인이다.

한국무역의 현재의 앞날에 질문을 받은 한 사무담당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올림에 수출이 부진한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하고있다. 양초 수출목표를 달성하는것은 어딘지않으나 인플레로 인한 단가상승으로 수치적 증가는 보이나 물량의 증가는 작년수준에 머물고있고 전망돼 실제의 수출성장은 정지된 상태에 있다고말한다.

수출주선정책이 국내자본과 물자를 해외로 대량방출, 국내인플레의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대한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긴축은 이 문제자원을 벚어나 오히려 수출마저도 저해하는 요인이돼 고용의 문제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위한 일환으로 조속히 수입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입자유화는 방출된 물자만큼 국내에 물자를 유입, 물가안정과 대수출국의 수입규제를 완화시키는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대아랍 정책,「유태계」바이어잃을 위험

그러나 여러문제점에서도 특히 대일 무역역조는 가장 심한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작년 대일무역적자가 33억불인데 비해 일본을 제외한 무역흑자는 30억불에 그치고있어 역조현상은 심각한 대일 경제문제로 부각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일무역구조의 불균형에 있는것이 아니라 한국무역의 현주소를 앞아보기 위해 기자의 발길은 최근 코엑스 (KOREA HEARLD)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KTA) 를 찾았다.

KTA (Korea Trade Association) 는 1946년 창설돼 현재 무역업 등록회사 2421개를 산하회원으로 하여 협동조합형태로 수출증대및 수출경쟁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사단법인이다.

한국무역의 현재의 앞날에 질문을 받은 한 사무담당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 올림에 수출이 부진한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하고있다. 양초 수출목표를 달성하는것은 어딘지않으나 인플레로 인한 단가상승으로 수치적 증가는 보이나 물량의 증가는 작년수준에 머물고있고 전망돼 실제의 수출성장은 정지된 상태에 있다고말한다.

수출주선정책이 국내자본과 물자를 해외로 대량방출, 국내인플레의 요인으로 작용해 이에대한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긴축은 이 문제자원을 벚어나 오히려 수출마저도 저해하는 요인이돼 고용의 문제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위한 일환으로 조속히 수입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수입자유화는 방출된 물자만큼 국내에 물자를 유입, 물가안정과 대수출국의 수입규제를 완화시키는 이중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미술전과 대중의 발전

-70년대 미술문화를 돌아켜본다

유 준 상

1970년대의 미술계는 그 후반만 들어도 많은 혼란과 발전이 있었다. 선전(鮮展)이후시작된 국전은그동안 많은 시시비비 (是是非非) 끝에 중해보비 폐지가 되었으며, 일마전에는 부동산투기의 대상으로 미술품이 경매되는등 대중의 미술에 대한 그릇된 애착이 폐단이되어 나타났으나, 한편 중앙, 한국, 동아 일보등 신문사주최의 민전이 한림할으로써 경색된화단 풍토를 진작시키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대중은 미술문화에의 접근을 조심스레시도 미술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미술전과 대중」이란 소제(小題) 하에 오늘날의 미술전과 대중의의미의 변화를 고찰, 70년대 미술문화를 정리해보는 작업을 마련하였다.

<편집자주>

예술은 원숙해야하며 원숙은 예술가의 의무라고「호이징하」라는 철학자가 말한바 있다. 그의 견해인즉 예술은 취입자가 아니며 고법사라는 것으로서, 가령 숲앞에 전개되는 숲을 거기 키는게 아니라 그 숲을 지나쳐온 경험을 종합만들것이다. 말하자면 바라보는게 아니라 뛰돌아보는 뒤새김이 바로 예술일것이라는뜻이 되겠다.

이러한 그의 견해를 채용해 우리들의 예술을 회새겨볼때 1970년대의 한국미술은 여러가지 면에서 큰변모를 보여줬던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국내의 현상으로서는 국전에 비길만한 규모의 전시회가 동아, 중앙, 한국등의 신문사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천되었으며, 국외 (國外) 로는 여러 국제적인 전시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는 전시회는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형위되는 그러한 전시회를 말하는게 아니라 시대와 사회와 연관되는성격요소의 전시회 (competition) 임을 알아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국전같은 성격의 전시회와 신문사들이 주최하는 전시회는 냘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것 같다.

가령 국전은 국가의 「기능」이말과 또는 「권위」등이 참여하는 성격의 것일테고, 신문사의 그것은 이보다는 비교적 자율적인요구에 의해서 행사되는 전시회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본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회에 대한 역사적이고 지역적인 모형이나 계승형식을 우리들은 가져본 경험이 없었다. 주지하듯이 우리들의 전시회는 개화의 산물이었고, 실제적으로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문화정책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이식된 서구형식의 하나였던 것이며, 이른바 조선총독부 미술전람회인 속칭 「선전 (鮮展)」이 바로써 그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우리들의 근대화의 과정은 비단 예술문화의 측면에서만 나타났던게 아니고 정치 경제등 모든 분야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던 도식 (scheme) 이기도 한것이다. 국가는 점차 기구기능적인 외적형식으로 머물게 되고 내적내용으로서의 권위라면가 가치관같은 것은 자율단체안으로 귀속되기시작하면 떠였다. 따라서 전시회는 바로 예술은 아니지만 전시회라는 기능 (function) 을 통해서 예술인 품위 (dignity) 이 모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왕이나 방황의 권위가 정치의 기능을 그대로 빙자하면 전근대적이고 미분과 필 현상은 점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함과 상응하여서 전시회라는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가 예술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든가, 혹는 정치권력을 빙자하는현상은 그 힘을 크게 상실당하게 되었던 것이며,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가 (사회) 기반위에 비로소 전시회라는게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기서 유럽의 16세기가 개인 (individual) 의 대두요 종교개혁으로 성취되었던 역사적변모현을 상기해야만 필경 순수형식요소로써 자율적인 것으로부터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찌입으며 이것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것은 「전시회」라고 일컬게 되었던 것이다. 업마전까지의 우리들은 전시장에서 전시작품을 보면서 그 자율성 (autonomy) 과 개별성 (unique) 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관조 (contemplation) 하는 데서 창조 (Creation) 를 실장 (recognition) 하고 자신인 파토스 (pathos) 의 고양을맛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라면가 「관조」등의 전달을 기실 우리들 심리표적현상요로서의 예술에 대한 요구였던것이다. 말하자면 「나」라는 자아의식의 우위로서 이러한 의식을 작동시킨다는 뜻이지만 이 「나」는 바로 대중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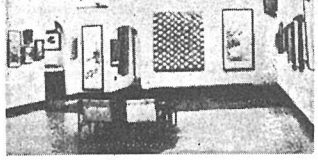
「단테」라면가 「페테」같은 유일 무일한 보편인 (homo universale) 도 범용거리라면가 욱리같은 전시장에운동도는 많은 관객의 일원일때 그것은 벌써 대중의 한 구성단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미술전시와 대중의 관계는 이처럼 오늘날에이르러드러나고 있으며 자아의식요로서의 「미술관」보다는 이러한 의식에 상응하는 관념요로서의「사회의식」이 예술에 있어서도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명백하지 못할때 우리는 예술도, 인간도, 그리고 시대도 모르게 되며 예술계 스노보이의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의 스노비즘 (snobisme) 의 사회학은 앞으로, 우리들이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작품창에서 실제로는 느낀게 없으면서 마치 격렬한 의식을 빚은것처럼 꾸미는 유사주이 (pseudo-events) 만은 삼가야될줄로 믿는다. 더우기 시대의현여요로서, 역사의 최절단에 서 있는 젊은 예리트들에게 복극제이고 구축일은 극복이 요청되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전시회」·「대중」의미 크게변해

예술에 있어서의 스노비즘 극복돼야



◇오늘날 대중과 전시회는 복합적으로 획대된 의미가진다.

유럽의 경우 대체적으로 18세기경부터 전시회라는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당시의 유럽은 이른바 중성국가 (neutral state) 의 성격을 굳히고 있었던 때였었으며 이러한 결과의 개인의 자율적인 입장이 절문명으로 등한다는 의식과, 종교적 가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주상된 순수형식으로 심화되기 시작했던 당시의 유럽의 표양을 상상해보아야 하겠다는것이다. 따라서 예술가라는 한 개인의 정치, 경제, 종교등의 간섭으로부터 주상된 자유로운 자율인으로서 자각하기 시작했고, 예술이 점차 순수형식요로서의 자율적인 것으로부터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찌입으며 이것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는것은 「전시회」라고 일컬게 되었던 것이다. 업마전까지의 우리들은 전시장에서 전시작품을 보면서 그 자율성(autonomy) 과 개별성 (unique) 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관조 (contemplation) 하는 데서 창조(Creation) 를 실장 (recognition) 하고 자신인 파토스 (pathos) 의 고양을맛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라면가 「관조」등의 전달을 기실 우리들 심리표적현상요로서의 예술에 대한 요구였던것이다. 말하자면 「나」라는 자아의식의 우위로서 이러한 의식을 작동시킨다는 뜻이지만 이 「나」는 바로 대중은 아닌 것이다.

「단테」라면가 「페테」같은 유일 무일한 보편인 (homo universale) 도 범용거리라면가 욱리같은 전시장에운동도는 많은 관객의 일원일때 그것은 벌써 대중의 한 구성단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미술전시와 대중의 관계는 이처럼 오늘날에이르러드러나고 있으며 자아의식요로서의 「미술관」보다는 이러한 의식에 상응하는 관념요로서의「사회의식」이 예술에 있어서도 요청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명백하지 못할때 우리는 예술도, 인간도, 그리고 시대도 모르게 되며 예술계 스노보이의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예술에 있어서의 스노비즘 (snobisme) 의 사회학은 앞으로, 우리들이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이며, 작품창에서 실제로는 느낀게 없으면서 마치 격렬한 의식을 빚은것처럼 꾸미는 유사주이 (pseudo-events) 만은 삼가야될줄로 믿는다. 더우기 시대의현여요로서, 역사의 최절단에 서 있는 젊은 예리트들에게 복극제이고 구축일은 극복이 요청되는 것이다.

<미술평론가>

강연 지상 녹음

대학생의 창조적 가치관

대학이 「지상에서 가장아름다운 집단」인 까닭은 대학의 3가지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즉, 대학은 「젊은이의 집단이요, 「정신적 가치추구의 집단」이며 「미래를 위한 창조집단」이기 때문이다.

청년은 젊은 과거와 긴 미래를 가진 「시간」자본의 소유자이고, 그러므로 누구나 인생을 사랑하려면 먼저 시간을 사랑해야한다. 또한, 젊음은 창성한 「생명력」을 특징한다. 다만 항상 속고파여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해 그것을 쓸 것인가」란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의 정신력 특권은 청신한 「감격성」일 것이다. 젊은 때의 감격이란 흔히 새로운 자각과 외유의 쇄뚜렷한 것이다. 생명의 특성은 「성장력」이지만 자란다는 것은 매우 「때 (時) 를 타는」일이다. 청년기가 유일하고 가장 폐합한 성장의 시기라는 것은 외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상」이란 자본 또한 청춘의 특권이나, 대개 많지 않은, 밝고 깨끗한 정신의 소유자만이 음은 이상을 그릴수 있다. 나는 이것을「젊은이의 5대 자본」이라고 말하고자한다. 이들 5대 기본사상은 젊은이의 공동체인 대학에서 위대한「가능성」을 찾는 기대와 부합임을 볼 수 있다.

내가 무엇때로 「정신력 가치」를 강은 것은 대학이란 젊은이들이 만손히 모인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시장사회나 권력사회, 합학사회가 아닌 끝없이 젊은활동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젊고 정신력인 가치가 기준이 된 사회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대학이란 한 민족의 푸르고, 싱장이요, 앙심으로서 「인족의 밝은 설들즐기」이어야 한다. 「학생은 미래를 위한 무기를 준비하는 자」라는 도산의 말이 아말로 대학을 「미래를 위한 창조집단」이라 규정짓는 등은 에 (例) 인것 같다.

학교의 대학생은 특권계급이다. 수많은 이유로인해 국민학교때 같은 졸업선상에서 뛰기 시작한 100여명의 동료중 겨우 93명이나 멀어져나간것이 현재의 한국 교육이다. 그러나 대학생은 「선택받은 7%의 창조적 소수」란 명칭의 사치성에만 빠져서는 안된다. 특권유제하고 훈련시키는 준비작업이다. 그 다음 단계로 「능력 (Ability) 」가요구된다. 현대 사회의 능력본위 실력경쟁의 속성에 비추어볼때, 이 능력은 새가지로 분석할수 있다. 그것은 아성, 지성, 덕성인데 특히학교교육의 현계성이 많이노출되고 있는 요즈음, 덕성은 「양심수양」이란 점에서 절저히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능력인 것이다.

이밖에 「Ambition」과 「Ability」가 확립되면 사기인 (四氣人) 이란 전인 (全人) 이란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금의 정신」을 강조해본다. 지구상에의 썩지않는 덧안되는 물질의 하나인 소금은 자신이 부패하지 않음으로써 남의 부패까지도 막아준다. 이것이 곧 대학생들이 지녀야할 책임이자 의무이다.

◇강연중인 안병욱교수

『우리나라는 위대한가능성이있는나라이외다. 그가능성을실현시킬장본인이 다름아닌 여러분이외다. 우리도 힘있는 나라, 힘있는 국민이됩시다.』

이 「창조적 가치관」을보다 절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3A원리」를 살펴볼 필요가있겠다. 그것 째가 「야망 (Ambition) 」이다. 이것은 선대 (先代) 의 「입지 (立志) 」개념과 같은 것으로 목표를 확립하여 신념화함으로써 자신을 유제하고 훈련시키는 준비작업이다. 그 다음 단계로 「능력 (Ability) 」가요구된다. 현대 사회의 능력본위 실력경쟁의 속성에 비추어볼때, 이 능력은 세가지로 분석할수 있다. 그것은 아성, 지성, 덕성인데 특히학교교육의 현계성이 많이노출되고 있는 요즈음, 덕성은 「양심수양」이란 점에서 절저히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능력인 것이다.

이밖에 「Ambition」과 「Ability」가 확립되면 사기인 (四氣人) 이란 전인 (全人) 이란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금의 정신」을 강조해본다. 지구상에의 썩지않는 덧안되는 물질의 하나인 소금은 자신이 부패하지 않음으로써 남의 부패까지도 막아준다. 이것이 곧 대학생들이 지녀야할 책임이자 의무이다.

이 「창조적 가치관」을보다 절저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3A원리」를 살펴볼 필요가있겠다. 그것 째가 「야망 (Ambition) 」이다. 이것은 선대 (先代) 의 「입지 (立志) 」개념과 같은 것으로 목표를 확립하여 신념화함으로써 자신을 유제하고 훈련시키는 준비작업이다. 그 다음 단계로 「능력 (Ability) 」가요구된다. 현대 사회의 능력본위 실력경쟁의 속성에 비추어볼때, 이 능력은 세가지로 분석할수 있다. 그것은 아성, 지성, 덕성인데 특히학교교육의 현계성이 많이노출되고 있는 요즈음, 덕성은 「양심수양」이란 점에서 절저히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능력인 것이다.

이밖에 「Ambition」과 「Ability」가 확립되면 사기인 (四氣人) 이란 전인 (全人) 이 필수 있다.

필요로, 기성세대의 대학생에대한 기대를 「우리나라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외다. 그가능성을 실현시킬장본인이 다름아닌 여러분들 이외다. 우리도 힘있는 나라, 힘있는 국민이 됩시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

<체>

가을학기 교양강좌가지난 19일 본대학 사회과학관 205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초청강사는 안병욱 (숭실대) 교수로 「대학생의 창조적 가치관」이란 주제하에 약 150여명이 운집, 강연을 경청했다. 안교수는 이자리에서 『젊은이의 5대자본』 사상에대해 이야기하고 대학의 가치는 자본을 육성할 가능성을 찾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대학은 미래위한 창조 집단

젊음이 지닌「생명력」

「무엇위해 쓸것인가」 숙고해야

김 준 섭

「전시회」·「대중」의미 크게변해

예술에 있어서의 스노비즘 극복돼야

이 준 상

박 순 함

낙엽의 철학을 믿으며

지난 하늘에 잔 기운이 돋고 창 밖엔 은행잎이 나기 처럼 지고 있다.

여기 또 하나의 해가기 울고 있어, 떨어진 은행잎 속에 한가닥 수심이 함께 자리 잡는다.

다가올 한 겨울의 시련을 생각해서만은 아닌 것 같다. 삶아 보고자, 삶아내보고자 무척이나 애쓰는우리 모두의 가복함 (?) 을 이 가을 내 주위를 떠나지 않는것이다. 유현 (幽玄) 한 하늘, 해바라기, 그리고 낙엽 등등. 그것들은마음속 깊숙히 자리잡고 있어, 때로 나를 종만하고, 엄밀에 철학으로게 하고, 또는 우울하게 한다. 그러나 이 가을, 나는 종만하지도 무하고 아심을 갖지도 못한다. 아마 하잘 것 없는 낙엽을 동정하는 그런 감상에 빠져들기가 때문일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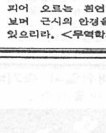
「낙엽의 바스락 거리는소리를 들어보세요」 누가 나에게 말을 건네다면? 나는 비앙거림 지 모른다. 그만치 현실은 가중하고나 이 논리를 거꾸로 바꿔놓고 싶어 한다. 오히려 오늘의 헤어짐이 있기에 다시 만남의 기쁨이 있을것이 아닌가고…그러기에 막 헐가만 해도 이 낙엽을밟고 나서면 겨울방학이라는 휘여찬 젊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 또 그 다음 현 새 봄의 다시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은가고….

그럼다. 떠남과 아쉬움의 가을이 아니라 「기약과 바램을 속삭여 주는 낙엽의 철학 이라고 믿으면서 겨울어가는 이 가을을 바라보기로하자. <영어과·교수>

만추(晩秋)

사랑만루

다음제목 : 농성과시위
매 수 : 200자3매
마 감 : 10월30일



여 학 구

부 활

장 동 진

버드나무로
퀴정 퀴정 일어나
도 한번 손을 흔드는
우리의 인연
몇해만인가, 그날
김푸른 하늘속 깊숙히
차디찬 몇바닥 틈이 민새
버물가지 사이로 떠나간 자세.
술 취한 그림자 따라 끌같이 와
빗빗한 방, 스무살 머슴에 무릎 위
두둑 두둑 서 있으면
막걸리 음복 먹고 한바탕
히히 웃던 자세의 허영덩 치아
보이는것 같군.
버드나무로 무성히 치솟아
한아픈 바람을 보듬고
웅성거리는 목숨.
바라만 보아도 흔들리며
울다가
웃다가
자세의 손짓까지 그대로 흉내 내어
나를 부르는
이토록 오래인
우리의 인연.

<이탈리아어과·1>

영 화 수 상

세련된 연기와 영상미

영화「un homme et une femme」를 보고

최 소 인

클로드·룰루아소독의 영상언어가 전편을 통해 잔잔한 빈틈기가 되어 관객의 마음을 적셔주고, 한 편의 시와 같은 뿌듯한 감동을 안겨주는 영화 「남과 여」는 모든 삶들을 웃 빗기우는 가혹한 가을의 스산함을 녹일 수 있는 현한한 불꽃을 모든 이의 가슴 속에 피워줄 수 있는 작품이다.

그녀의 말대로 가장 완벽하고 저순한 몸짓으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젊은 미망인(아누르·에메 분할)의 거부할 수 없이 목 줄라는 공허 (空虛) 함과 정신병자인 아내를 자살이라는 미명으로 떠앗긴채 슬픔하는 자동차·레이스에 그의 모든것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는 한 사나이 (장·루이·트리티낭 분할)의 한아지른 듯한 고뇌감이 한 나 이야기를 나누고, 효각을 느끼며, 다시 서로에게 잉태된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해 수반되는 고뇌와 장벽, 또 눈물—이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정화되는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혹은 파려한 외로움으로 혹은 순수한 즐거움으로, 혹은 절실한 그리움으로 그려지고 있다.

남편을 잃은 정신적인 상흔 (안느와 그녀의 전 남편과의 생활은 생활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표현되어 있다. 서로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사랑하므로 헤어질 수 있는 그들의 용기는 우리에게 결국 자신 공포없 수 없이 없는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서 사랑과 신뢰의 진수를 보여준다) 을 아직 간직하고, 망부의 제위를 항상 그녀의 남자로은 뜻닿위로 느끼며 살아가면 안느는 류특의 모습에서 자신의 본신을 발견한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구하는 소리없는 목소리를 하여 안느는 류특에게 수상 별력으로 사랑을 느낀다. 그녀는 처음에는 마치 마지막 정념을 불사르 듯 그에게 몰두하나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고 자리잡고 있는 전 남편의 영상앞에서 입추어 서고만다. 안느는 류특을 향해 다다를 수 없는 심연을 느끼며 전 남편에 대한 죄의식과 타오르는 기립의 갈등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가슴아파한다. 하나 지상에서의 화사한 사랑의 슬럼은 결국 그녀의 갈등을 녹여내리고야 만다. 류특과 안느는 파리에에서 드기운 포용으로 한 알의 보석으로 결정지어진 들의 사랑을 확인한다.

이 영화는 뛰어난 감독의 화면처리와 완벽한 연기자들의 연기, 그리고 영상예술을 창조하는 아주르에에의 포토제닉한 마스크로 더 한층 빛을 발하며, 프랑스 테이의 음악도 화면과 더불어 그 감미로움을 더해준다. 화려한 수상경력이 말해주 듯 「남과 여」는 오랫만에 대하는 수작의 명화이며, 저인 (知人) 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작품이다.

<이탈리아어과·2>

신 간 소 개

■「들에핀 백합을 보라」 어리코·베리씨무 지음, 이승덕 옮김.

이 책은 브라질 현대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에리코 베리씨무의 장편소설로, 한 의사의 인생편력을 통해 현실사회의 명암을 조명, 진지한 삶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평민사발행. 2200원>

■시집 「집뜰된 시간」 이영걸 지음.

그동안 밤 (1974) 귀향 (1976) 목단강 (1977) 등의 시집을 출간한바있는 이영걸 (영어과) 교수의제5시집으로「방상」「지나온 들판」 등 총16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문학사발행. >

■「길고 뜨거운 사랑의 노래」 알마·말러—베르펠 지음, 오희자 역.

알마의 자서전으로 구스타프·말러, 발터 그로피우스 프란츠·베르펠과의 생활을 서술해나가 작품.

<전예원발행. 1900원>

—알 림—

지난 10월 1일자(제289호) 4면에 게재되었던 기사중 <직상표지음—연극의 미중화는 가능한가>에 대한 장연호는 단지 편집위원의 주최로 열렸던것으로, 편집자주의 누락으로 밝혀지지 않았음을 사과하며 독자제위의 학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높이 날수록
보다 먼곳을 볼수 있읍니다.

뜻이 높아야 이루는 일도 큽니다.
젊음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國際그룹은
젊음이 스스로 飛翔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세계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 놓았읍니다
높이 나는 세가 보다 먼곳을 볼 수 있듯,
젊음의 뜻은 높고 커야 합니다.
우리 기업 30년은 수많은 젊음이 이룩한 창조,
그리고 도약의 의지가 쌓아올린 보람의 역사입니다.

國際그룹
ICC GROUP